

○ 해외산업간호정보 ○

미국의 산업간호

한국방송대학교 보건과학과
김 영 임 교수

필자는 한국방송대학교의 교수국외학술연수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1년 2월부터 1년간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방문교수로 활동을 하였다.

씨애틀에 내리던 첫 날은 추적추적 늘 비가 내린다는 겨울 날씨답지 않게 쾌청한 날씨여서 이국땅에서의 낯설음이 한결 감해졌다.

워싱턴대학은 미국 대학의 간호학부만 평가 1위 대학이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교수와 박사학위후 과정 학생들의 방문이 많은 대학인데, 공교롭게 필자가 방문하기 한 학기전부터 연수비를 받고 있어서 그런지 전년에 비해 방문 교수나 학위후 과정생들이 현격히 줄어 있었다.

도착 다음날 대학 국제협력담당자를 만나 연구실을 안내받고, 신분증과 한 학기동안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가지게 되었다. 워싱턴대학이 있는 지역은 시내의 동북부 지역으로 대학이 있기에 형성된 하나의 작은 시처럼 되어있어 대학구내를 통과하는 버스만도 20편은 족히 넘었다.

간호대학이 있는 곳은 대학병원, 보건대학원, 치과대학, 의과대학 등이 사용하는 복합건물로서 기존 건물에 필요한대로 새 건물을 이어붙여 복도천장의 표시 판을 따라 찾아다닐 수는 있지만 마치 미로 속 같이 연결되어 있었다. 오랜 역사를 갖는 대학이 그렇듯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캠퍼스로 발전되고 있었다. 씨애틀은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인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창시자인 빌 게이트가 자란 곳이고, 워싱턴대학은 그 어머니인 메리게이트가 졸업한 학교라 기여금으로 기념관과 도서관이 멋지게 지어져 있었다.

연수의 일환으로 간호대학 및 보건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중 본교에서 강의를 담당하거나 관심영역에 대해 수강하게 되었는데, 봄 학기에 수강한 과목중 산업간호관련 과목은 보건대학원에서 개설된 산업보건정책과 인간공학이었다. 마침 간호대학에서 개설된 과목은 없었는데 아쉽게도 필자가 머문동안 간호대학에서 개설된 산업관련과목이 없어서 과목 수강은 하지 못하였다. 간호대학에는 산업간호학전공의 '메

리 살라자르' 교수가 산업전문간호사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만나 면담과 토의는 했었지만 과목수강의 기회는 갖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첫 학기 수강과목중 이 두 과목은 참 인상깊게 남아있다. 산업보건정책은 산업, 환경보건 안전영역의 역사적 정치적 정책이슈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과목으로 두 명의 강사가 강의를 주도하면서 거의 매 시간 주제에 따라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와 토의로 진행되었다. 어떻게 정치적 힘이 안전보건관련 법규를 제정하게 하는지, 어떻게 법이 공공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대중매체나 이익단체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면서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은 산업환경보건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발생된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어 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사례발표하고, 모의 국회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써 역할하면서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대리경험을 생생하게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공장내 대형화재사건, 폭발사건, 광산합물, 그리고 육가공업공장, 밧데리공장, 페인트 공장 등 근로자재해 등의 사건으로부터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업보건환경을 개선하는 과정, 이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과

정이 흥미로웠다.

시간마다 나눠주는 엄청난 양의 자료와 참고 문헌을 읽고 토의함으로써 정부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 법제정과 시행으로부터 안전보건의 기반을 돈독히 하는 양상, 발생된 사건의 원인이 파헤쳐지고 이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법이 제정되고 관리되는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세세히 배우는 것이었다. 특히 간호사나 의사가 임상에서 겪는 주사바늘절립문제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하고, 의료현장의 위해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주사기를 개발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보면서 실제적용이 원활하고, 빠르게 적용되는 현실에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인상 깊었던 또 한 과목은 인간공학이었는데, 이 과목의 강사는 일선에서 인간공학 전문가로 활동하는 베테랑이어서 아주 실제적인 강의가 진행되었다. 케이트라는 이름의 이 강사의 이메일 주소는 'ergowoman' 인간공학과 결혼한 여인처럼 이 분야의 업무에 열정적이었고, 그녀의 열정이 전달되었다. 강의는 산업적 인간공학의 기초, 인간공학적 위해요인의 분석방법, 인간공학적 위해에 대한 중재방법, 인간공학의 프로그램운영 예, 사례발표 등을 다루었는데, 과목 강의전 시험과 강의후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능력을 꼼꼼히 체크하고 시간마다 학

▶메리 살라자르 산업간호학 교수와 함께...



워싱턴대학교에서 ◀

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발표를 시키고, 현장견학도 마련하였다. 현장견학은 보잉사로 갔었는데, 보잉사는 워싱턴주의 대표적인 4대 산업(보잉사, 스타박스커피, 아마존 책,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하나로 이들 산업이 워싱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그런 곳중 하나였다. 까다로운 출입절차를 거쳐 공장으로 들어가니 칸막이로 구분된 책상마다 컴퓨터가 놓여 있는 사무실의 규모가 매우 커서 인상적이었다.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은 비행기의 날개부분을 구성하는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기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인간공학적인 원리를 잘 적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발전되어 있는 체제에 감탄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최적의 인간공학적 환경아래에서 근무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서서 작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컴퓨터가 놓여있는 책상 앞에서도 의자없이 서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 작업환경에 비인간화가 느껴졌다. 그러한 환경에 걸맞게 근로자들의 움직임은 매우 느리면서 둔하고, 대다수 근로자들은 비만상태여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은 우수하나 인간으로서의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가혹한 환경이 과연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 의아심이 들었다.

이 과목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례발표였는데 필자도 참여하기를 원해 인간공학이 적용되는 현장을 배정받았다. 병원의 화상병동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어떠한 인간공학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촬영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캠코더도 준비하고, 힘들게 담당 책임자와 약속을 하고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그 담당자가 긴급회의에 참석하려 가 자리

에 없어 결국 환자관찰과 촬영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아 아쉬움을 남겼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부터 학생이 되어 보면서 느낀 점은 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가르치는 강사의 준비성, 교수방법, 과목에 대한 열의 등이 어떻게 학생에게 전달되어 지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지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고, 또한 최선을 다해 강의에 임해야겠다는 반성의 시간도 가져 보았다.

한편 연구의 일환으로 몇 군데 사업장을 방문하였었는데, 원하는 바 건강증진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은 아니었지만 방문해 산업간호사의 활동을 보면서 간호사들이 철저한 직업정신 하에 근로자들을 아끼고 돌보고 있는 점, 거창한 기구나 설비의 사용없이도 간편한 기구를 통해 근로자들의 체력과 근강화훈련에 적용하고 있는 점, 지속적인 교육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고 있는 점들을 실감하였다. 방문한 사업장의 산업간호사들이 워싱턴대학에서 산업전문간호사과정을 하고 있거나 끝낸 간호사들이어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실제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돋보였고, 이들의 애정어린 근로자 돌봄이 인상깊었다.

워싱턴대학의 산업전문간호사과정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는 이들에 대해 장학금 지원제도에 힘입는 바 크다 하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산업전문간호사과정이 도입될 것이다. 산업전문간호사과정이 당분간은 1년의 교육과정이 주를 이루다 점차로 대학원과정으로 운영될 터인데,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개설은 물론 개설된 과정에 들어 올 학생들이 재정부담없이 맘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생에 대한 장학지원책이 마련되어야겠다.

